



한국전력기술이
함께 합니다!



내일을 위한 생각! 이웃을 위한 생각!

함께하는 사회, 사람을 향한 기술!

나와 내 이웃이 함께 행복한 빛의 세상을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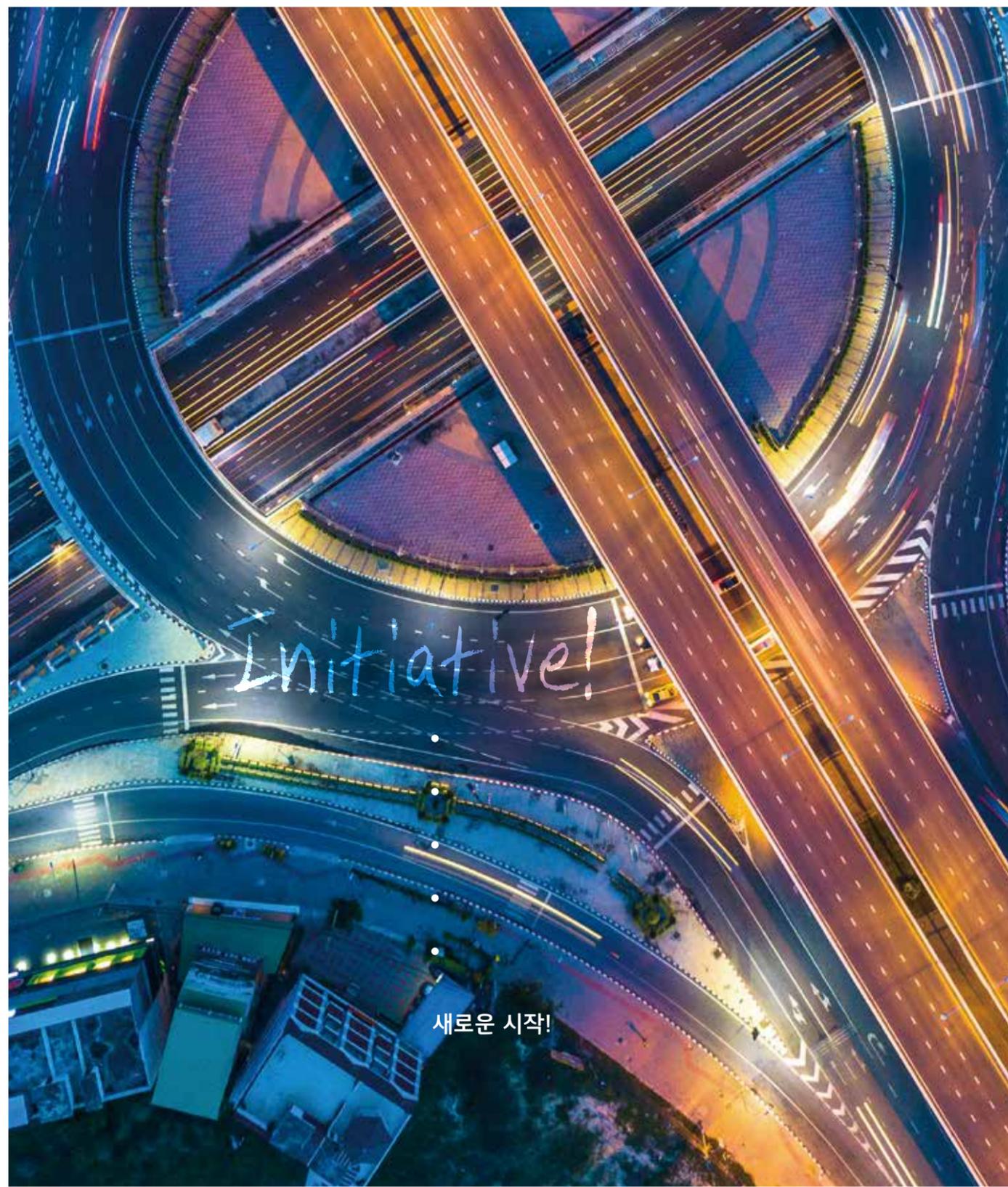


KEPCO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Family

2022. 01+02



2022 01+02
KEPCO E&C
Family



통권 468호 2022년 1,2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2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동아인쇄(주)(054-433-4454)

04 K-Message
 2022년 신년사

08 Brief News

2022년 시무식 개최
 지속가능경영 다짐 대회 시행
 BIXPO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특별상 수상
 2021년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1 한국 감사인 대회' 자랑스러운 감사인 대상 수상
 서울복합발전소 준공 기념행사
 핵융합·플라즈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ITER케이블설계 KCMS 구축사업 수주
 무탄소전원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기술교류회 개최
 DECON 2021 원전해체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12 4차산업혁명
 디지털 세상이 온다

14 그때 그 순간
 기술입국의 꿈, 사막의 바라카 원전에 꽃피다

16 한기인의 메아리
 2022년 기대의 순간

18 이달의 한기인
 조현진 차장, 김용수 부장

20 With 코로나! With 한기!
 굿바이 코로나! 워드북데이!!!

22 슬기로운 회사생활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

24 퇴직자 연수기
 제2의 인생 시작 우즈베키스탄 정착기

28 직원사진 참여 마당
 멀리서 바라본 영금정

29 이 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0 Shall We Meet?
 위기에 빠진 컴퓨터를 구할 지나가던 귀인! 임기현 과장!

32 맛집탐방
 맛의 미학을 누릴수 있는 포레스트 키친

34 작가의 흔적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차브타트

38 머니머니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40 펜 가는 길
 눈이다

42 Culture
 히든 피겨스

44 술익는 마을 : 우리 술을 찾아갑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한국와인, 뽕꼬레

46 Editor's Letter
 독자의견 등



자긍심과 활력이 넘치는 2022년!



사랑하는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희망(希望)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UAE와 프랑스, 그리고 영광, 울진, 월성, 고리 등 국내·외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께도 안전과 건강의 염원을 담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우리는 코로나19와 에너지전환이라는 엄중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에 매진하였습니다. 극도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슬기롭게 모색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지만, 매출의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호랑이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황소의 걸음처럼 신중하고 끈기있게 나아간다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에 우리 한국전력기술이 역점을 두고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변환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합니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한 걸음 뒤쳐져 있지만, 생존을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임을 명심하고 원자력 분야에서부터 디지털 변환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둘째,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해야 합니다. 비상경영체제 하에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각 본부·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전을 만들고 매출 및 사업개발, 그리고 조직, 예산과 인력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본부·단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당당하게 그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현재의 비상경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영진은 경영진의 위치에서 그리고 직위자는 직위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功) 그리고 과(過)를 적용하는 선순환의 책임경영 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한국전력기술은 에너지 기술분야의 국가대표라는 명실상부한 자긍심과 사명감이 넘쳐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전력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경쟁력과 그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의 고객들로부터 우리의 핵심역량을 인정받으며

여기에 걸맞는 엔지니어링 대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한국전력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기술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훈련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우리 회사는 독자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영역'의 확대를 중단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만 의존하는 천수답(天水畚)식 경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영역을 넓혀나가는 경영체질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하여온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법적 지위를 갖춘 고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 신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도 사업화로 연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부가가치의 재무적 성과창출과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윤리준법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ESG경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새로이 구축한 ESG 경영체

제를 경영활동 전반에서 고도화하고, 혁신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의 사업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한국전력기술 고유의 ESG경영을 함께 정착시켜 나갑시다.

사랑하는 한국전력기술 가족 여러분!!

새해 첫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하나가 된다면 성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경영진 모두가 솔선수범의 중심이 되고, 회사의 경영환경을 공유하기 위하여 직원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도 자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Vision을 보다 높이 세우고 우리의 열정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자긍심과 활력이 넘쳐나는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사장 김 성 압

2022년 임인년 (壬寅年), 극복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례 없는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과 '위기'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학계의 「포스트 코로나」 및 「위드 코로나」 논의와 더불어, 정부도 「일상의 회복과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지만, 여전히 코로나와의 지리멸렬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증유의 변화 속에서 기업 환경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과 에너지 대전환 및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우리 회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새해가 새해같지 않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실감합니다.

한기 가족 여러분,
한기는 46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처럼 우리 회사 역시 그동안 숱한 위기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경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역경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이며, 이러한 작금의 헌신과 노력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확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상임감사로서, 매순간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회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경영현안 및 관련 리스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2022년 임인년, 다음의 목표에 역점을 두고 감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감사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문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에 답습하던 관행 등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규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 「수감인 인권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적극행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회사의 미래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경영위기 극복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지원하는데 모든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업부서 자율 점검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직원에 대한 방만 경영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체질 개선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현업부서의 업무수행을 점검하는 내부감사 본연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미래 위험요인을 찾아 해야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사의 「ESG경영」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SG경영은 이미 일부 선도 기업의 선택이 아닌 전 세계 주요 산업계를 아우르는 메가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우리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공기업들이 업(業)과 연계하여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생, 인권, 일자리창출, 동반성장, 공정경쟁, 지역경제 기여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가치경영」은 「ESG경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자체감사기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ESG경영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고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2022년 올해는, 극복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저는 상임감사로서, 고난과 역경에 맞서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3일
상임감사 정 일 순

KEPCO E&C News



2022년 시무식 개최

우리 회사는 1월 3일 2022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성암 사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엄중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모습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새해에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22년도 역점 추진사항으로 '디지털 변환 추진', '책임경영 시스템 정착', '안정적인 사업영역의 확대'를 제시하고 자긍심과 사명감이 넘쳐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속가능경영 다짐 대회 시행

2022년 1월 9일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다짐하는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날 산행에는 김성암 사장, 정일순 상임감사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과 하진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하였으며 김천혁신도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운남산 정상에 올라 힘찬 새해 출발을 다짐했다. 김성암 사장은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호랑이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황소의 걸음처럼 끈기있게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축적하여 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영역 확대, 고부가가치 사업성과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경영진 모두가 솔선수범의 중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IXPO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특별상 수상

BIXPO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금상/특별상 수상

2021년 BIXPO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우리회사의 "폐선박을 활용한 침두부하 발전설비"가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BIXPO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기술의 미래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종합에너지박람회다. 부대행사로 개최된 국제발명특허대전은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로부터 공식 인증된 발명·특허전시회로 세계 각국의 100여개 전력분야 최신 발명기술이 선보인 자리이다. 우리회사가 출품한 기술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한 VISION 2030달성을 위한 재생 에너지산업(풍력 분야)의 주도, 그린뉴딜 핵심산업인 해상풍력 사업개발 확대, 재생에너지 변동성(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극복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등 해당 기술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는 "폐선박을 재활용하는 해상풍력단지 고도화 Multi 플랫폼 기술"이다. 회사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본 발명품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021년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12월 13일 '2021년도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성과 공유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3대 혁신분야(사회적가치 성과창출,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제고, 국민신뢰 제고)에서 본부(단) 및 부서별 혁신 사례 총 49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예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참여단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본선에서도 시민혁신위원이 발표심사에 참여하여 최종 대상 1건, 최우수 2건, 우수 5건을 선정하였다. 대상은 사회적가치 성과창출분야에서 '국내최초 원전 미분무소화설비 개념설계 및 성능인증추진'이, 최우수상은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분야의 '주제어실 적합성 평가시스템 개발' 및 '디지털 전환과 생애주기 엔지니어링으로의 혁신'이 선정되었다. 김성암 사장은 대표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회사의 지속적 혁신동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 우수사례의 혁신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2021 한국 감사인 대회' 자랑스러운 감사인 대상 수상

'2021 한국 감사인 대회' 자랑스러운 감사인 대상 수상

정일순 상임감사가 2021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일순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신뢰회복 및 국가 에너지사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지향 윤리경영 지원 및 사회적 책무 위반 방지, 수요자 중심 감사제도 구축, 적극행정 지원, 대내외 위험 대응 예방적 내부통제 등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정일순 상임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감사 본연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미래 위험요인에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공기관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KEPCO E&C News

서울복합발전소 준공 기념행사

우리 회사가 종합설계기술용역을 수행한 서울복합발전소의 준공 기념행사가 11월 23일 서울복합발전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발주처 한국중부발전(주) 김호빈 사장과 우리 회사 김동규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정청래 국회의원,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주)/롯데건설(주)의 임직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복합발전소는 당인리 발전소 부지에 건설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LNG 복합발전소로서 지하에는 발전설비가 설치되고 상부는 공원으로 주민에게 개방된 친환경 및 주민친화형 발전소이다. 회사는 지하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설계, 시공, 시운전 전반에 걸쳐 종합설계기술용역 역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본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서울복합발전소 준공 기념행사

핵융합·플라즈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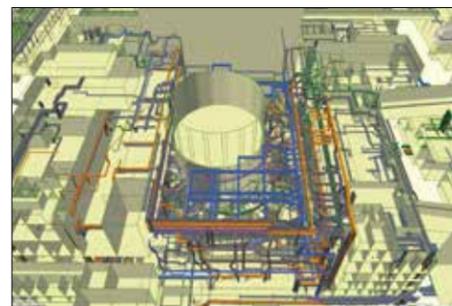
12월 8일 김천 본사에서 (주)비츠로테크, (주)비츠로넥스텍과 'ITER 발주사업 및 방폐물 플라즈마 처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범서 원자력본부장, 비츠로테크 유병언 대표이사, 비츠로넥스텍 이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비츠로테크와 (주)비츠로넥스텍은 지난 3년간 ITER 기자재 공급사업에서 500억원 규모를 수주하는 등 핵융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핵융합·플라즈마 부문 사업 확대를 위한 정보교환과 기술교류, 입찰 공동참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국내 원자력 기자재 공급사와 협력하여 ITER 발주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핵융합 공급망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국의 핵융합 발전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다.



핵융합·플라즈마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ITER케이블설계 KCMS 구축사업 수주

회사는 12월 10일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기구에서 발주한 50억원 규모의 '케이블설계 KCMS(KEPCO-E&C Cable Management System)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한기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KCMS는 케이블설계, 구매 및 시공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신규 원자력발전소 설계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2012년부터 케이블엔지니어링 지원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ITER 참여 7개국인 KCMS 프로그램의 탁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개발 및 기술력 홍보 과정에서 ITER 한국사업단(단장 정기정)의 긴밀한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ITER케이블설계 KCMS 구축사업 수주

무탄소전원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기술교류회 개최

12월 8일과 16일 양일간 본사는 "무탄소전원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기술교류회"를



무탄소전원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기술교류회 개최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발전기술과 기술 주도 기관별 기술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무탄소(수소/암모니아) 혼소 및 전소 발전 기술 현황, 수소/암모니아발전 문제점 분석,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사례분석,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현황 및 적용사례, 수소/암모니아 공급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여러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술교류회는 관련기관 및 기업들의 협업 차원에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그린뉴딜, 무탄소전원 Mix 확보,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 이행과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위해 최신 연구개발 동향과 핵심기술, 사업화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DECON 2021 원전해체 국제 컨퍼런스 개최

회사는 독일 악티몬도(actimondo)사와 공동 주관으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원전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국제 컨퍼런스인 DECON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Decommissioning and Waste Management)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해체에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장으로서 원전해체 경험이 풍부한 독일 해체전문기업들의 역량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열렸다. 참석기관으로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 GNS, 한수원 등 총 50여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가상전시장은 우리회사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4개 기관, 독일에서는 7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특히 패널 토론과 B2B 미팅은 온라인 라이브로 개최되었으며 논문발표는 사전 영상녹화로 진행하였다. 회사는 이번 DECON 2021 행사를 통하여 원전해체 관련 기술력 홍보와 해외 원전해체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DECON 2021 원전해체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회사는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과 동시에 인정기관 총 350개소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정제가 시행된 2019년부터 3년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여 진정한 상생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디지털 세상이 온다

- 데이터기본법 제정의 의의

셰익스피어는 “지식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날개”라고 말했다. 16~17세기 사람인 셰익스피어에게 것처럼 소중한 것은 지식이었겠지만, 21세기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날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철은 산업의 '쌀'이었다. 또한 '철은 국력(國力)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국력'인 시대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통해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와 시장의 요구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이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을 지난 11월에 통과시켰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한 몇 개의 법안들이 이미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들을 융합하여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데이터 거버넌스와 분야별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데이터기본법'은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와 같은 데이터 정책의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와 함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담고 있다. 데이터 유통시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래나 결합, 분석 등에 관한 사항들도 담고 있다. 특히 '데이터기본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데이터 뉴딜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이를 통한 고객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0년 1월 초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기반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의 활용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데이터의 활용에는 수요-공급에 의한 유통시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DNA(Data, Network, AI)

공정한 거래와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장의 부작용을 감시하고 활용과 오남용을 규율할 기본적 안전장치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에 의의가 있다.

다만 '데이터기본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정책적 현실과 시장의 요구로 신속하게 입법이 진행되어야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기본법'에 입법의 불비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자면,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데이터거래사' 제도와 '데이터 사업자 등록제도' 등은 그 목적과 효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규제인지 진흥정책인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데이터 거래의 중개에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자칫 데이터 거래가 경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저작권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되 자유로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제에는 안전하고 효율적 데이터 거래시장과 데이터 시장의 구성원들에 대한 적절한 역할 부여를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장 질서 감시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활용을 적극 확산하여 데이터 자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가능케 하는 기술과 시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고민과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모든 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 다만 신속한 데이터 입법을 통해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는 명백하였다. 물론 법률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정책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다급함에 서둘러 '디지털기본법' 제정에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민주화와 정보화를 통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후발 경제주체들의 추격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이룩했던 도약을 또다시 우리 역량으로 이루어야 하는 분야 역시 디지털이다. 특히 전력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전소 디지털화, 자율 운전, 전조 감시 시스템, 가상발전소 등과 같은 기술을 위해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는 디지털의 핵심이고 날개다.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기본법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이유이다. **E&C**

기술입국의 꿈, 사막의 바라카 원전에 꽃피다

우리 동네에 전깃불이 처음 들어온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50여 년 전쯤 일이다. 그날 온 동네 사람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초롱불 대신 전깃불을 켜니, 달빛보다 밝고 밤에도 대명천지였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여전히 나무로 군불을 때서, 밥도 짓고 방도 덥혔다. 긴 세월 연기에 그을린 부엌은 검댕으로 온통 까맣다.

날마다 조리와 난방에 필요한 나무의 양은 상당했다. 하지만 동네 주변의 산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었다. 땀감으로 모두 베어 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겨우내 먼 용문산까지 가서서 나무를 해오셨다. 아침 일찍 도시락 두 개를 싸서 가시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나 돌아오셨다. 나뭇짐이 산더미 같았다. 아버지의 손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두터웠다. 방직공장에 취직한 막내 누나가 첫 월급으로 아버지께 사드린 첫 선물이 길쭉하고 질긴 군용장갑이었다. 어린 우리도 아버지 힘을 덜어드리려고, 가까운 산에 가서 갈퀴로 잡풀을 긁어모아 새끼로 묶어오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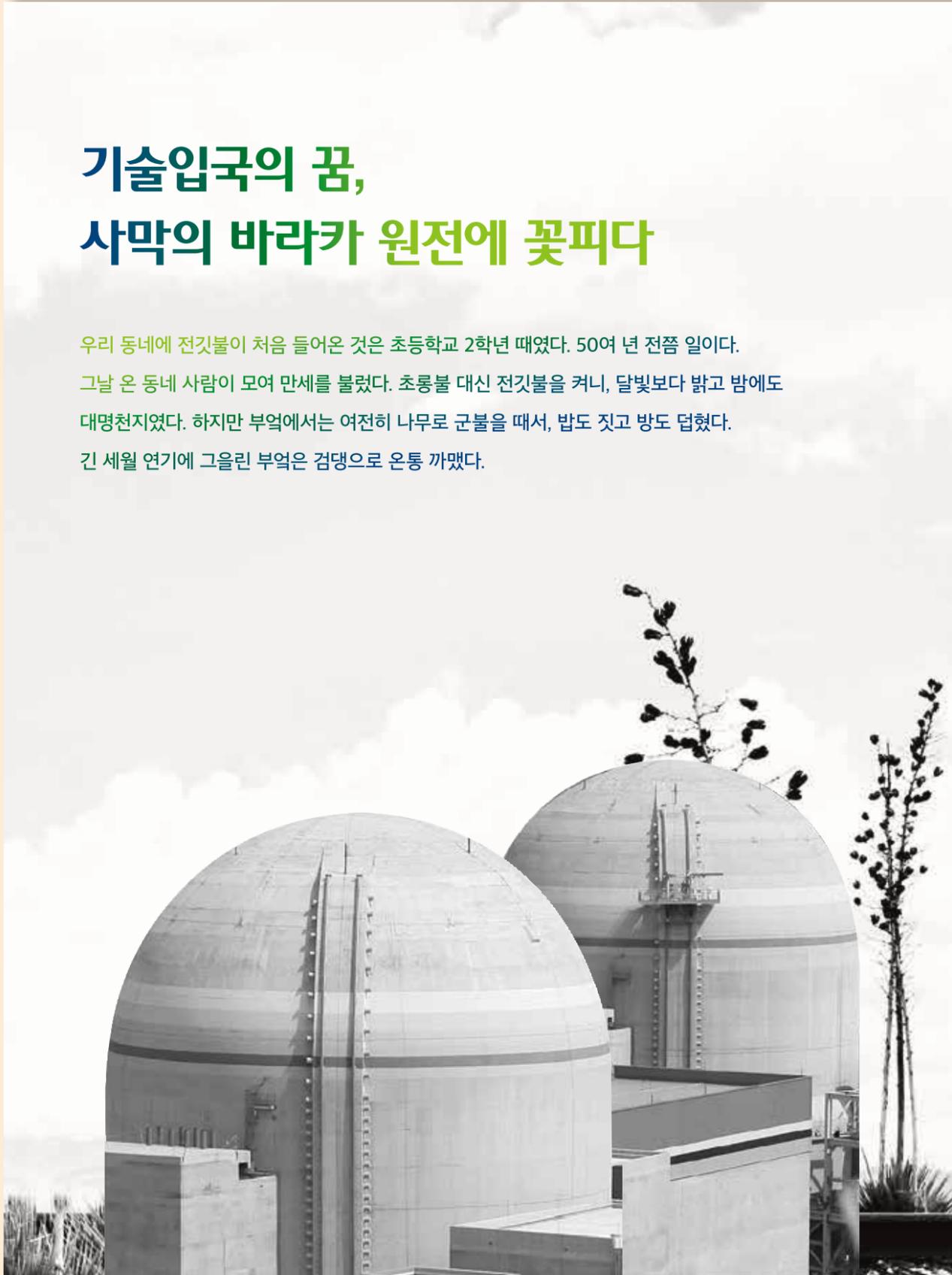
60여 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나는 다섯 차례나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걸 경험했다. 처음은 나무, 중학교 무렵에는 연탄을 쓰기 시작했다. 석유보일러는 고등학교 때 처음 보았다. 대학교 때 가스보일러가 나왔다. 지금은 음식을 만드는 데도 전기를 쓴다. 불꽃도, 연기도 없다.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

정부에서 일하던 2010년 3월, 바라카 원전 기공식에 참석하는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하늘에서 본 아랍의 풍경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뿐이었다. 그러나 아부다비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름다운 가로수들과 높이 치솟은 현대적 빌딩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오일 달러의 풍요 속에서도 UAE의 고민은 깊었다. 포스트 오일 시대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그래서 기름이 넘치는 데도 원전을 짓기로 한 것이다.

2009년 한국, 프랑스, 일본 등 세 컨소시엄이 UAE 원전 건설 수주를 놓고 경쟁했다. 당시 아부다비 주재 미국대사관의 비밀전문을 보면, 한국이 모델, 기술, 납품 등 모든 면에서 단연 우세했다. 가격은 경쟁국의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군사안보협력을 약속하면서, 11월 초 프랑스로 키가 기울었다. UAE에게는 페르시아만 건너 이란의 위협이 늘 목 안의 가시였다. 이를 간파한 대통령은 한 달간 여섯 차례나 모하메드 왕세자와 직접 통화했다. 안보협력도 약속했다. 그렇게 극적으로 원전 수주를 따냈다.

바라카 원전 수주 규모는 총 400억 달러에 달한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수출성과라고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한국의 기술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기술입국의 꿈을 이뤘다는 사실이다. 언 손을 부비며 나무하던 어린 시절, 그런 일을 꿈이나 꾸었겠는가! 그런데 그 꿈을 이룬 게 바로 한국전력기술이다. 그 사실을 최근 한국전력기술40년사를 우연히 읽다가 알았다. 그리고 단지 기술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리더의 혜안이 있었고, 갈력진충(竭力盡忠)의 헌신이 있었다. 개인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애국심, 처음이라 두려웠던 길을 피하지 않았던 용기, 사장과도 하루종일 토론을 벌이는 놀라운 합리성이 있었다. 우리가 해놓고도 그저 놀라울 따름인 대한민국의 기적은 다름 아닌 한국전력기술의 기적이었다. **E&C**

竭力盡忠





설문조사

2022년 기대의 순간

칼 세이건이 말했듯,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으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 영겁의 시간 속에서도 항상 찰나의 특별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정재승 박사는 자신의 책 <열두 발자국>에서 움베르토 에코가 경험한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다.

움베르토 에코가 어떤 과학관에 방문하였을 때 겪은 이야기이다. 그는 관람하던 도중 큐레이터 안내에 따라 천체관에 들어갔다. 어둠한 공간 속에서 큐레이터는 그의 생일과 고향을 물었고, 잠시 뒤 그가 태어난 날 알렉산드리아 밤하늘이 천체관에 재현되었다.

그때 움베르토 에코는 '과학의 결과물인 동시에 너무나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순간을 경험하였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2022년을 맞이하여 한기인 여러분에게 저마다의 추억과 기대와 다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한기 동료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우리 한기 가족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 집사람을 처음 만나고(대학교 1학년), 프로포즈는 대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그해 11월 14일 대학교 앞 카페 2층에서 집사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친구 관계 이상으로 사귀어 볼까?"라고 물어보았을 때가 내 인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1월 14일이 되면 스치는 가을바람과 커피 향이 생각나며 가슴이 그때처럼 두근두근하며 설레는 이유는 집사람을 사랑해서겠죠?

이원희 부장 (원전O&M사업그룹)

■ 지금은 10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성장한 딸아이가 태어난 2012년 11월 26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윤용준 차장 (원자력사업처)

■ 미래의 나의 신부에게 청혼하여 수락하여 준 순간, 서울 잠실 롯데타워를 야경을 배경으로, 프리포즈 문구와 프리포즈 반지과 같이 웃어주는 예비 신부님의 모습

최창섭 사원 (기술전략실)

■ 내몽고 여행 갔을 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봤던 순간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현 사원 (경영혁신실)

■ 포항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선명한 새해 해돋이를 본 순간입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 그렇게 맑은 하늘에 또렷이 돌아나는 해돋이는 처음이었어요.

정문경 대리 (전기계측기술실)

2. 2022년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순간은 어떤 것인가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탈원전 정책이 변화되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진행 및 계속 운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원희 부장 (원전O&M사업그룹)

■ 원전 르네상스의 부활 및 해외원전 수출 성공을 기원합니다!

윤용준 차장 (원자력사업처)

■ 2022년 4월 9일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결혼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창섭 사원 (기술전략실)

■ 개인적으로는 10루타(?)를 한번 쳐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내년에 힘찬 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현 사원 (경영혁신실)

■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서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외 여행지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하고 싶어요.

정문경 대리 (전기계측기술실)



3. 여러분이 기대하는 순간을 위한 2022년 새로운 다짐은 무엇인가요?



■ 새로운 일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자.

이원희 부장 (원전O&M사업그룹)

■ 우리 회사의 사훈처럼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라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윤용준 차장 (원자력사업처)

■ 나의 반려자에게 최고의 남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을 찾고 만들어보자.(PS. 닌텐도 게임은 포기하지 말고...)

최창섭 사원 (기술전략실)

■ 퇴근 후에 피곤해서 자기 계발이나 재테크에 관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업무도 자기 계발도 거뜰히 해낼 수 있도록 2022년에는 올해보다 운동에 힘써 체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상현 사원 (경영혁신실)

■ 좋아하는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렵다고만 느껴 멀리했던 재테크 공부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정문경 대리 (전기계측기술실)





2021 전력기술 R&D 성과 컨퍼런스 포상

조현진 차장

ICT솔루션실 조현진 차장은 11월 1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2021의 '2021 R&D 성과 컨퍼런스'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함이다.



조현진 차장의 이번 수상은 국내외 플랜트 사업의 설계 문서 및 도면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설계지식공유시스템'은 다양한 곳에 산재한 수많은 설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중앙화하여 관리와 검색의 용이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전소 설계 기술 공기업인 우리 회사에 있어 기존 설계 유경험자들의 경험을 분류체계를 통해 체계화하여 향후 퇴직 등의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의 설계 경험을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속 세대들이 이를 통해 기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조현진 차장은 IPMS, DDMS 개발과 유지보수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자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데이터' 등 혁신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팀원들과 스터디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본래 본인의 전문분야는 디자인. 하지만 입사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여 현재는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과 후에는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즐기거나 사내 기악합주단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야금을 배우는 고풍스러운 취미에도 빠져들었다는 소문이다.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변화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진정 삶을 즐길 줄 아는 조현진 차장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해 본다.



2021 한국원자력학회 기술상 수상

김용수 부장

안전해석그룹의 사업책임자 김용수 부장은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한 2021년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원자력학회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원자력학회 기술상은 원자력공학 분야에서 우수하고 현저한 업적을 이루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김용수 부장에게 수상소감을 물었다. 김용수 부장은 그동안 업무를 통해 얻은 여러 개선아이디어를 꾸준히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이러한 기술적 업적이 인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겸손한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업무의 일환이나 연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계발과 향상심을 가지고 대하였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일과 후에도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모습에서 업무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에 관해 물었지만, 자신은 그러한 위인이나 기인들과는 다르다고 대답한다. 그러한 노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물으니 단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바다로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사람은 나태해지기 쉽다고 덧붙이면서, 자신도 집에 가면 '오늘은 쉴까?'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매일 조금씩 힘쓰고 노력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노력하는 김용수 부장의 마음과 같이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진정되어 우리 사회도 좀 더 나은 내일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딱지는 내가 왕!



잠시 한 것! 준비시키고 김치~~~!!!



무슨 소리! 이정도 파워는 되야지! 빠~샤~~~!!!



우리는 주인공 사수!!!



달고나는 역시 부셔야 제맛!!!



우왕! 나도 당첨!!!



행복한 기운! 빠~샤!!!

굿바이 코로나! 위드북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조직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독서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위드북Day'가 본사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이벤트의 테마는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와 달고나 게임에 세대를 넘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중간중간 들리는 부장님의 '아이고~!' 소리도 유쾌하게 느껴진다. 돌아온 일상과 한기인을 잇는 시간! 외쳐보자! 굿바이 코로나!



One Day Class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

'일 만큼 삶'이 중요해진 요즘, 직원들의 자기계발 독려와 상호소통을 위해 원데이클래스를 마련했다. 자기계발에 대한 다짐은 업무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노곤한 몸과 같이 녹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기 끝없는 열정으로 가득 찬 한기인 3명이 뭉쳤다.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랜덤 신(神)의 선택을 받은 한기인 3명이 플라워케이크 제작 현장으로 출발했다. 위치는 김천 이마트 맞은편 골목 어느 작은 공방.

공방에 도착한 후 작업대 앞에 서서 각자 어색한 통성명을 한다. 이번 클래스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세 사람이니 서먹할 만하다. 곧이어 수업이 시작하자 선생님의 시범과 설명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앙금으로 꽃을 만드는 것! 직접 만든 꽃을 케이크 위에 올려 장식할 것이라 한다. 먼저 선생님이 하얀색 앙금을 납작한 깍지틀을 끼운 짚주머니에 넣어 각자의 손에 쥐여준다. '네일이라는 이 판 위에 기둥을 만들고, 잎을 하나하나 붙이면 돼요.' 꽃을 만드는 작업은 지름이 4~5센치 정도 되는 원형 철판 밑에 얇은 막대가 달린 네일이라는 큰 압정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도구 위에 앙금을 짜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을 돌려 2~3센치 정도씩 세로로 앙금을 짜가면서 꽃잎을 한 잎씩 붙여나가는 작업이다. 다들 처음에는 서투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니 점점 손에 익는 모양이다. 연습을 할땐 흰 앙금만으로 하다가 색을 입히자 갑자기 다들 '우와~!'라는 감탄사와 함께 화사한 꽃들이 손 위에서 한 송이씩 피어난다. 옆에서 지켜보던 필자도 한번 시도해보았다. 옆에서 볼 땐 쉬워 보였지만,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다들 어느 정도 손에 익으니 선생님께서 응용법 시범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기가 부족한 '꽃린이'들에게는 무리인 듯하다. 공부, 운동, 업무 세상 어느 일이나 처음엔 지겹지만 단순한 것의 반복을 통해 기본기를 익히고 응용을 하고, 경험을 통해 그걸 체득해 나간다. 그렇다면 경험의 위력은 오늘 어디서 나올까? 이제 케이크 위에 꽃을 올릴 때, 그 경험, 찜땀이 나타난다. 열심히 만든 꽃을 미리 준비한 백설기 떡케이크에 올리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은 듯하다. 알록달록 색 조합도 고민이지만, 정성스레 만들어둔 꽃이 상할까 애지중지한다.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비명과 함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과감한 손놀림으로 '요건 요쪽으로 밀고, 누르면 돼요'라면서 휘휘 댕가 대충하는 것 같으면서도 선생님의 손길이 한 번씩 닿을 때마다 조금씩 작품에 가까워진다.

어느덧 꽃들이 모두 올라가니 어느덧 훌륭한 꽃 케이크 세 개가 완성되었다. 그런데도 2% 부족한 부분은 '마법의 나뭇잎'이 해결해준다. 살짝 공간이 남는 부분에 초록색으로 나뭇잎 모양으로 앙금을 짜주면 그야말로 오묘한 꽃 케이크 완성이다. 이제부터는 포토타임 시작! 사우 한 분이 부모님 결혼기념일 축하 문구를 케이크에 남긴다. '결기축하요!' 그리고 부모님께 카톡으로 전송! 떡케이크라 당일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는 하지만 4시간 동안 공들인 꽃장식에 포크를 가져다 대기에 큰 결심이 필요하다. 게다가 혼자 보기(?), 먹기에는 아까운지라 내일 부서원들에게 자랑하며 함께 먹겠다고 한다. 오늘 체험이 많은 한기인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예슬 사원

체험이 재미있었던 만큼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만들어둔 꽃을 케이크 위에 제가 었을 때는 앙상하고 어색한 모양이었지만 선생님이 센스있게 조정해주시고, 잎을 짜서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만한 예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 하나 없이 재미있고 완벽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우리 회사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문경 대리

오늘 수업에서 처음 본 잘 알지 못하던 사우들과 모여 앉아 각자의 케이크를 꾸밀 색깔을 하나씩 정하고 수업을 따라가면서 꽃을 한두 송이씩 만들어 가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색깔이 섞이고 꽃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결국 노랑, 분홍, 보라색이 골고루 섞인 케이크 3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유익한 수업과 사우분들과 짧은 시간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 많은 한기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데이클래스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인 사원

회사 포탈 게시판에 원데이클래스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할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설마 될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운이 좋게 당첨되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막상 수업이 진행되고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만들다 보니 어느새 금방 친해져 오순도순 애기도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로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시범을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어려워서 처음에는 고군분투하였지만 색다른 경험에 대한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손길을 받아 케이크를 완성하니 제법 그럴싸한 케이크가 만들어져서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니 기분 전환도 되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어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E&C



Lee. Make Cake
주소 : 김천시 신기길 103, 1층 103호(산음동)
instagram : @butter_nuna_
소규모 클래스 진행과 플라워케이크 주문제작을 한다.

KOICA는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의료, 기술환경 에너지 5개 분야 다양한 직종의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을 선발하여 30여개국에 파견하고 있다. 한기 가족 최대식 처장이 퇴직 이후 봉사단에 선발되어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되었던 수기를 편집부에 보내왔다.

제2의 인생 시작 우즈베키스탄 정착기

KOICA



KOICA 봉사단에 선발되어 우즈베크에 온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나는 우즈베키스탄 수도에 위치한 타슈켄트 어문어 대학에서 우즈베크어 공부하고 그 대학 기숙사에서 숙박을 했다. 기숙사는 이곳의 호텔보다도 낫다는 호평이고 사실 좋다. 다들 기숙사 호텔이라고 부른다. 다만 한달 동안 어려웠던 점은 날씨였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지만 햇살에 노출되면 금새 따갑고 건조하다. 온도는 40도 이상에 습도는 30% 미만이다. 하지만 그늘에 들어서면 크게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 한낮에 일하는 노무자도 땀이 흐르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더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내륙국으로 물부족 국가인지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잔디나 나무에 물을 뿌린다. 식당에서도 천정 부근에 호스를 달아서 구멍을 뚫고 스프레이 식으로 물을 뿌려준다. 그것이 시원하다.

타슈켄트에는 한국 사람도 많고 한국 식당도 많다. 또한 우즈베크인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다. 김치, 쌀 반찬 등이 다 있으며 한국에서 맛보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곳에 와서 모임은 대부분 한국 식당에서 한다. 한국 식당은 현지인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손님들이 많다. 가격은 1인당 5만숨(UZS)에서 8만숨 한국가격으로 보면 1/10정도 가격, 5천원에서 8천원 정도이다. 내가 머물던 숙소 인근에는 서울 강남에 비견될 정도로 좋은 레스토랑이 많다. 슈만지, 파샤도,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한국에서 이정도 식당 가격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므로 가끔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려고 하였다.



Tashkent

이곳의 민족성이라든가 사람의 특성들은 대부분 온순하고 친절하다. 다만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여자들이 잘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한국에서는 장비로 할 일들을 이곳에서 사람들이 한다. 뜨거운 한낮에도 일하고 한밤에도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정비도 잘 되어있지 않다. 도로를 다니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대우차이다. 대우 김우중씨는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 그 차들이 너무 생생거리며 달린다. 도로에서는 신호를 잘 지키지 않고 차들도 너무 빨라 조심을 해야 한다. 도로 정비도 신호체계도 보행자들도 운전자들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러나 우즈베크인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버스에 연장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고, 외국인에게 친절하다.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요금은 감수해야 하지만... 아마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면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지적응교육의 일환으로 부임할 곳(사마르칸트)로 이동하여 일주일간 현지인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다. 다행히 지내는 동안 집주인인 자물 교수가 대학교 영어교수여서 영어와 우즈베크어를 구사하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간에는 사마르칸트 직원훈련원에 가서 코디네이터인 만수르씨와 2년간 봉사하며 지낼 월세 집을 구하기 위해 이집



Samar

저집을 방문하였고, 저녁에는 자물 교수네 집으로 가서 그 집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청했다. 자물 교수의 가족은 자물 부부와 아들 둘, 딸 한 명이었으며, 집은 침실이 두 개, 거실이 하나, 주방, 욕실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비좁은 편이었다. 첫날 자물 부인이 외출한 탓에 자물 교수와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소시지 몇 조각과 국물, 밥 정도에 어이를 상실하여, 내일부터는 무조건 저녁은 먹고 들어오자고 마음을 먹었다. 집의 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 켜는 것도 눈치를 보아야 했다. 다행히 문을 여니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자물 교수와 가족들은 처음 본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었으며, 우즈베크어 외 영어는 구사하지 못해서 주로 자물 교수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자물 교수와는



kand



새벽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기도 하고, 동료교수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다양한 고급 음식, 많은 결혼행사를 보았으며, 뜻하지 않은 충실력까지 보여주는 경험을 했다. 마지막 날 동네 잔치에 참가해서 이리저리 둘러 다니며 동네 사람들과 보드카도 마시고 동갑내기 친구도 사귀고, 동네꼬마들과도 사진을 찍었다. 홈스테이 일주일 동안 자물교수 가족과 잘 지냈으며, 많은 것도 보았지만 힘도 들었고, 몸도 많이 지쳤다.

우즈베키스탄에 온지도 3달이 넘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도 낮에는 사마르의 8월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발품을 열심히 팔아 지금의 집을 월세360달러(USD)에 얻었다. 이곳에는 외국인에게는 월세를 비싸게(내국인에 비해 약1.5배)는 받지만 집안의 가전제품을 거의 갖추어 제공한다. 이곳은 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갖추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말하면 살면서 서서히(두 달 정도 소요됨) 마련해 준다. 그래도 약속한 것을 100% 지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집주인이 중요하다. 내가 살던 집의 집주인 오리프는 법원행정관으로 신의를 중요시한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지만 처음 계약을 맺을 때 말한 것을 다 지키지는 않았다.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은 이곳에서 꽤나 괜찮은 축에 속했다.(2부에서 계속) E&C

멀리서 바라본 영금정



임보람 인재개발원 인턴 / 아이폰11

취업 준비로 숨 가쁘게 살아가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고픈 마음에 간 속초는
숨통을 틔어주는 광경으로 나를 반겨주었다.

영금정은 참 신기한 것이
가까이서 볼 때는
높고 웅장하여 한눈에 담기도 어렵더니,
멀리서 볼 때는 커다란 풍경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내게 커다랗게 느껴지는 고민들도
사실은 이처럼 아주 티끌같은 존재인 것은 아닐까?

진한 눈썹과 빛나는 눈빛을 가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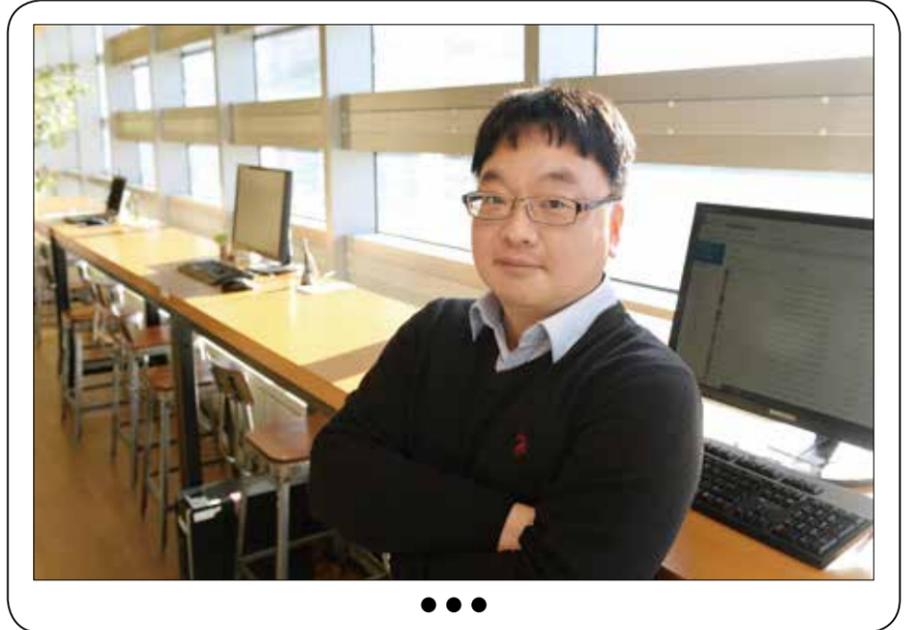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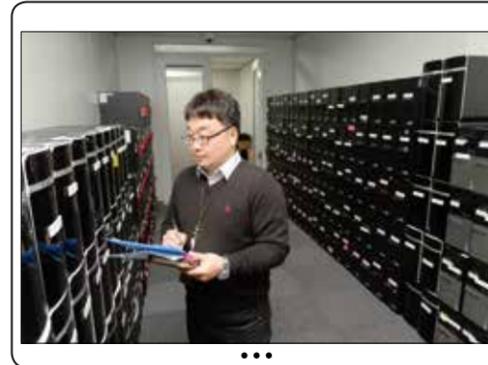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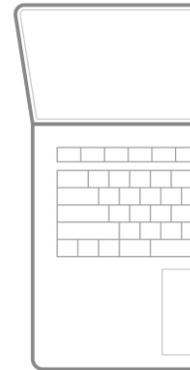


2021년 11월 광주에서 '2021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가 개최되었다. 수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손끝으로 무엇인가 가리키고 있다. 그의 손끝에는 어떤 미래기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진한 눈썹 아래 빛나는 눈빛으로 판넬을 응시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sky03tree@kepco-enc.com으로 2월 3일까지 정답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서양에는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과 같은 슈퍼 히어로가 있다면, 한국에는 호랑이는 물론이고, 구미호나 이무기 같은 온갖 요괴와 귀신마저 때려잡는 '지나가던 선비'가 있다. 그럼 한기에는?? 업무능력이 출중한 김과장도 꼼꼼한 보고서로 정평이 난 강대리도 컴퓨터가 고장 나면 무력하기만 하다. 이때 귀인이 등장한다. 물론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위급하다고 종을 칠 순 없으니 전화 한 통이면 그야말로 '지나가던'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컴퓨터 만능 해결사가 등장한다. 오늘의 주인공 임기현 과장이다.

위기에 빠진 컴퓨터를 구할 지나가던 귀인! 임기현 과장!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하니 “2007년부터 전산운영 그중에서도 유지보수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여기에 설명을 덧붙이며 ‘최종사용자(End-user)’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직접 사용자들과 맞대면하면서 다룬다고 한다. 우리 회사에는 포털을 비롯해 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이 따로 있다. 하지만 메뉴얼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디지털 친화도나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사용자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고장이 난 것인지 입력 실수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잘못된 설정, 하드웨어적 한계, 사용자의 잘못된 습관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오류가 발생한다. 이때 임기현 과장이 출동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고 물으니 “해당 증상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상정하고 관련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갑니

다.”라고 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라고 덧붙인다. 도움을 청하는 처지에서야 모든 문제를 똑딱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모양. 물론 네트워크 설정이나 윈도우 재설치와 같은 문제는 직접 해결하지만, 하드웨어 문제면 전산 담당에게 요청하고 포털이나 사내 시스템의 문제면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적은 없는지는 물었다. 아직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한다. 특히 ‘한전기술 서비스’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자신이 할 일로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근무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 지사에서 간혹 수리



요청이 들어오는데 시차 때문에 전화 통화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직접 모니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전화 통화로 오가는 정보만으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한다.

혹시 컴퓨터나 전산을 전공하였는지 질문하니, 전자공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쪽은 거의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계기로 컴퓨터 관련 지식을 쌓게 되었냐고 물으니, ‘역시 게임이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유명 유튜버가 학창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해서 제한된 장비로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 현재는 그 경험을 살려 컴퓨터 판매를 하면서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그의 대답 속에도 비슷한 길을 걸어 온 것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게임으로 컴퓨터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날 때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산 유지보수 쪽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게임과 유지보수라는 선문답같이 빈 공백이 있는 대답에 아쉬웠지만, 취미를 묻자 그의 문이 풀렸다. “요즘 서버 구축에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 사진 저장용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이용해 NAS를 구축하다가, 최근에는 친구의 문의(?) 때문에 최근 피시방에서 사용하는 ‘노하드(NoHDD)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리저리 만져보고 있다고 한다. 관심과 흥미가 자연스럽게 하나 하나 지식을 쌓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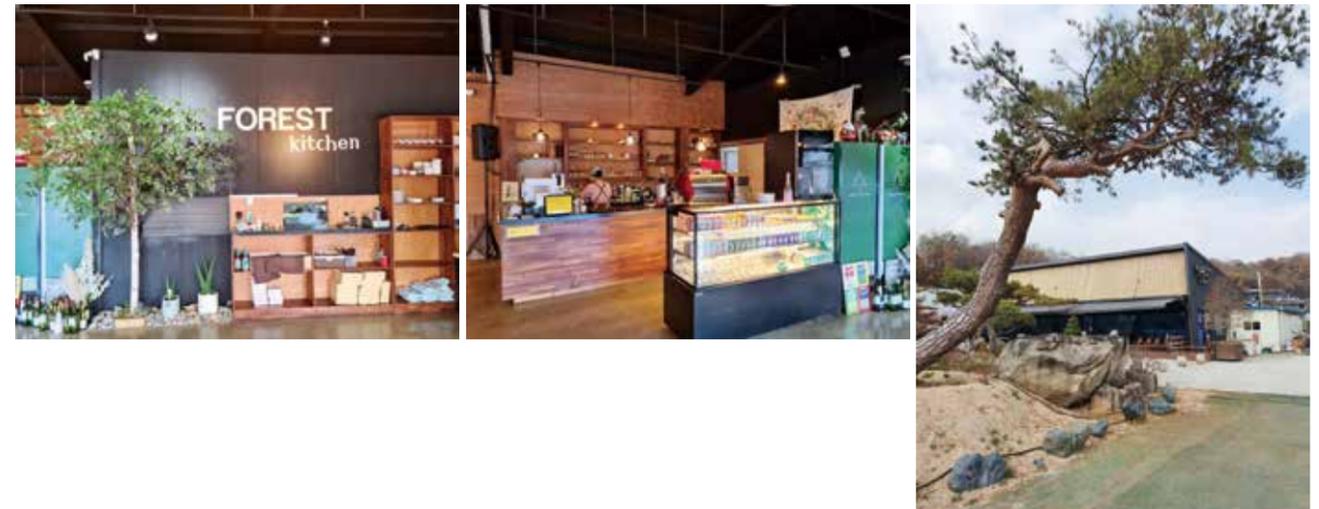
컴퓨터에 대한 취미 이외에도 등산, 자전거 등 운동을 취미로 삼아 즐긴다고 한다. 본인은 즐긴다는 표현보다는 단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여러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전거 출근을 즐기는 자출족에 예전엔 하프마라톤도 몇 차례 완주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는 운동가에 가깝다.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그동안 미뤄두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진정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임기현 과장!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만능 해결사와 같은 존재로 남기를 기대한다. [E&C](#)

맛의 미학을 누릴수 있는 포레스트 키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포레스트 키친'으로 찾아가다 보면, '이런 곳에 과연 식당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도로변엔 초록색 배경에 나무가 그려진 간판이 나타난다. 간판을 지나면 조금 어수선한 풍경이 펼쳐지지만, 길고양이들과 닭이 몇 마리 제집 앞마당 거닐 듯 돌아다니는 모습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식당 오픈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하지만 동승했던 일행들과 고양이나 닭들을 보고 사진을 찍으며 잠시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가게 열 시간이 다 되어간다.

■ 주소 :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589-3번지, 영업시간 : 수~일 11:30 ~21:00, Break Time 없음, 월·화 휴무



식당에 입장해 내부를 둘러보면 널찍한 공간에 테이블이 띄엄띄엄 있어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좋다. 자리에 앉아 일행들과 신중히 메뉴를 고른 후 가게 구석구석을 탐방해 본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거울이 놓여져 있어 일행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좋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가게는 어느덧 손님들로 가득 차 즐거운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투움바 파스타가 식탁 위에 놓였을 때, '주문에 실수가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투움바 파스타라고 하기에는 특이하게도 파스타 위에 꽃게가 한 마리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의구심과 함께 포크를 휘적여 파스타를 입에 넣어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투움바 파스타 맛이 맞다. 투움바 파스타의 기원은 유명 미국 프랜차이즈에서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투움바(Toowoomba)라는 작은 도시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그 프랜차이즈에서 블랜딩 한 소스 맛은 큰 인기를 끌었고 국내의 여러 식당에서도 재현하고 있다. 그리고 포레스트 키친에서는 투움바 파스타 위에 꽃게를 통으로 얹어 이곳만의 특별함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게살을 발라 먹는 약간의 거추장스러움을 감내한다면 게살에 투움바 소스를 곁들여 먹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소고기 안심과 등심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티본스테이크는 사장님이 직접 추천하는 메뉴로 다른 식당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500g에 7만원 쯤 하지만 이곳에선 5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맛볼 수 있다.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썰어 밑에 숨어 있는 가니쉬들과 함께 즐긴다. 스테이크를 씹었을 때 터져 나오는 육즙이 혀의 침샘을 자극한다. 취향에 따라 소금, 겨자, 고추냉이를 곁들여 먹으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소금이나 고추냉이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맛 보았으니 피자도 빠질 수 없다. 한 번에 여러 맛을 맛보고 싶었던 우리는 마르게리따와 페페로니 반반피자(마르게리따/페페로니)를 주문했다. (메뉴에 따라 반반이 되지 않는 피자가 있다.) 포레스트 키친의 피자는 흔치 않은 형태인 둥근 직사각형 모양을 특징으로 한다. 흔히 즐기는 피자와는 다른 모양새가 색다름을 더해준다. 화덕에 구워

약간 거뭇함이 묻어났지만 이런 자연스러움은 오히려 토핑처럼 보이게 만든다. 결을 따라 나뉘진 피자 한 조각을 그냥 무심코 들어 올리면 모차렐라 치즈가 쏟아져서 늘어나서 덜어 먹기가 쉽지 않다. 반드시 피자 서버로 결을 따라 제대로 잘라줘야만 한다. 피자집의 실력을 알려면 마르게리따 피자를 먹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바질, 모차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 3가지의 토핑만 사용하기에 때문에 쉽사리 맛있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나쁘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식사를 마친 후에 직원을 호출하면 디저트를 주문할 수 있다. 디저트는 아이스크림과 차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시기에 따라 다른 맛이 제공된다고 한다. 요리와 디저트로 배를 든든하게 채웠다면 잠시 정원을 거닐어도 좋다. 가게에서 나와 정면을 바라보면 저 멀리 분수대와 사육장이 보인다. 무엇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면 토실토실한 토끼들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좁은 우리에게 갈취하는 게 조금 불쌍하게도 느껴지지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걸 보니 그래도 먹을 걱정 없이 살고 있나 보다. E&C



Dubrovnik

그 후
5년 뒤에,

나는 로망의 근원지였던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광장에 내 남편이 된 그때의 애인과 함께 와 있었다. 우리도 둘이서 긴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철없이 품었던 로망이 어느 날 진짜로 실현되었다는 건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감격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꼭 향수를 뿌린 것만 같아서 두브로브니크의 도착한 처음엔 짙은 감격의 향기에 취해 심장이 두근거렸다. 빛바랜 아이보리 색 건물과 주황색 지붕으로 둘러싸인 곳을 정처 없이 걷다 보면 바다가 나왔다. 낮에는 햇빛이 하얀 건물과 바닥에 반사되어서 더욱더 눈부셨고, 밤에는 야경의 불빛이 반사돼서 그런지 또 눈부셨다. 진주 같은 곳이었다. 머무는 내내 틈만 나면 구시가지로 산책하러 나갔다.

하지만 같은 것을 계속 보다 보니 향수 향기 날아가듯 처음의 감격도 차차 증발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새로운 감격을 충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을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바다로 향했다. 수영을 잘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튜브가 있으니 든든했다. 수영복을 입어 본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두브로브니크의 백화점에 가서 수영복까지 샀다. 유튜브로 수영하는 법을 보며 연습도 했다. 튜브에 바람도 가득 불어 넣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조금은 긴장을 한 채 해변으로 걸어갔다.

해변 앞에 도착한 순간, 당장 숙소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중에 튜브를 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다. 꼬마 아이들도 자유롭게 바다를 수영하고 청년들은 절벽 바위에서 바다로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차브타트

감격을 유지하는 방법

스물네 살쯤 TV에서 한 여행 프로그램을 봤다. 출연자들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광장에 있는 오래된 건물의 2층 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한국인 부부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출연자는 어떻게 이곳에 오지게 됐냐는 질문을 던졌고, 창문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던 그 부부는 둘이서 긴 여행을 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내게는 애인이 있었다. 언젠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둘이서 긴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로망을 그 TV를 보다가 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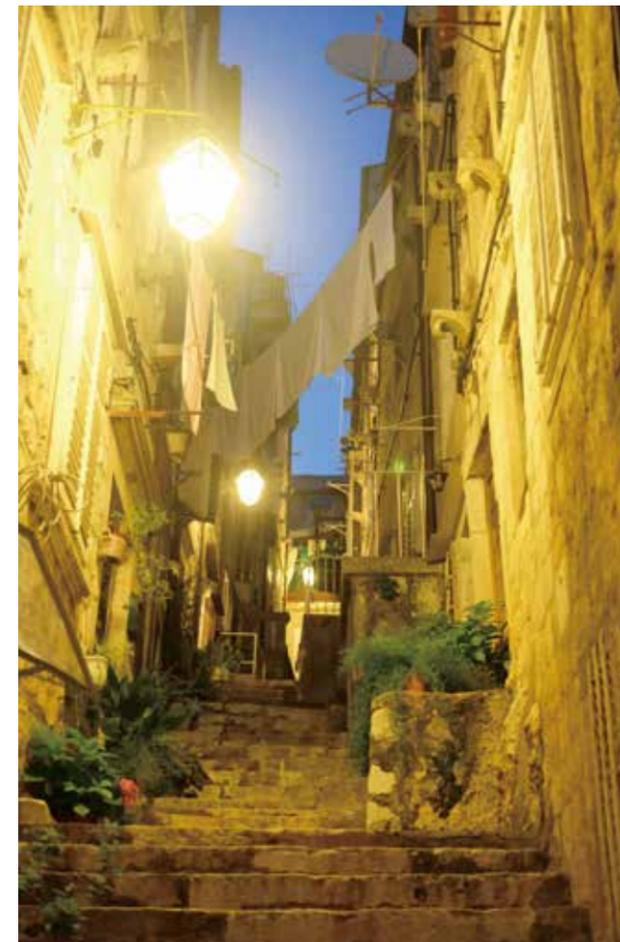


C a v t a t

다이빙까지 하는 판이었다. 그곳에서 유일한 동양인 둘이 튜브를 들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숨고 싶었다.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우스워 보일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이 바다는 우리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를 곳이다. 그 사실이 용기를 주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이 바다에 뛰어들기로 했다. 물론 튜브를 끼고.

신기하게도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걱정과 부끄러움이 깨끗이 씻겨져 나갔다. 발이 닿는 곳에서만 왔다 갔다 하며, 슈퍼에서 급히 산 물안경으로 바닷물 안을 구경하다 보니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보였다. 고개를 들면 산과 하늘과 바다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기대했던 감각 이상이 물결과 함께 왔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의 해변에서 거의 목욕탕 냉탕에서 할 법한 움직임만 하고 있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즐긴 첫 유럽 바다 수영은 충분히 감격스러웠다.

첫 해수욕에서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바다에 몸을 담그고 싶어서 버스로 40분 정도 이동하면 나오는 차브타트 라는 작은 동네에 갔다. 계획에 없던 즉흥적인 여행이었다.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바글거리던 두브로브니크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여유로운 해안 마을이었다. 이곳에 갈 때도 옷 안에 수영복을 입고 나섰고, 마음에 드는 해변이 나오면 입고 있는 걸옷을 훌훌 벗고 바다로 뛰어들기로 했다. 자릿세를 받는 인기 많은 해변을 지나 사람이 별로 없는 해변을 발견했다. 자릿세를 받는 사람도 없었다. '여기가 우리의 바다다' 싶어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두 번째 해수욕이라 그런지 전보다는 남 눈치가 덜 보였다. 그래서 더 자유롭게 만끽했다.



또 다른 감격의 기회는 늘 있다

하나의 감격은 오래갈 수 없는 때가 많지만, 또 다른 감격의 기회는 늘 있다는 것을 두브로브니크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 감격은 익숙했던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향해 뛰어들 때 더욱 강렬하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에게 바다 수영이 그랬고, 즉흥적으로 간 차브타트가 그랬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단 걱정이 앞서고 남들 눈치 보기 바쁜 내가 이런 감격을 겹겹이 경험하며 점점 뛰어드는 맛을 알게 된 것 같다. 꼭 여행지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나의 평범한 오늘 안에서도 주저함을 깨고 시작할 것을 생각해본다. 마침 새해결심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아직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수영과 자세만 따라 하다 끝난 테니스를 다시 배우고 싶다. 해본 적 없는 건강한 요리도 연습하고 싶다. 새로 읽을 책들과 새로 쓸 글, 새로 그릴 그림도 기대된다. 아이가 보여줄 새로운 성장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그런 크고 작은 새로움 속에 평범하고도 감격스러운 일상을 살고 싶다. 크로아티아의 그 바다처럼 나의 오늘도 다시 오지 않을 하루니까. **E&C**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원자력 안전성, 프로젝트 관리(PM), 주식투자의 공통점은? 모두 위험을 감지하여 방어하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 산업 안전성은 병리학을 차용하여 그 대상으로 면역체계를 안전성 이론에 대입하고 있다. 프로젝트 관리는 예기치 않는 위험 요소를 정량화, 정성화하여 돌발상황(Contingency)과 완충(Buffer) 비용을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사업 초기 약한 고리라 생각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투입하는 이유는 애초 1,000원으로 막을 일을 나중 수십하느라 10,000원 투입해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원칙대로 하면, 주변에서 "그런 쓸데없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고 자원을 투입해요?" 반대가 심하다. 본래 사람들은 이순신이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걸 자랑으로 여긴다. PM과 달리 주식투자는 주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분할매매, 분산투자, 현금 보유를 기본으로 한다.

미래 예측에서 확실한 것은 "그 어떤 미래도 불확실하게 전개된다." 사실만 참이다. 여기서 리스크는 블랙스완(black swan)과 회색 코뿔소(gray rhino)로 비유된다. 블랙스완은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예외적 사건이 터져 나올 때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오는 현상이다. 일명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 증시는 몇 년간 혼절 상태로 돌아눕는다. 블랙스완은 10년, 20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드문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는 블랙스완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단지 모두는 無知(unknown)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 "거의 없다." 물론 똑똑한 생쥐는 몰래 빠져나갔는지도 모른다.

미시적 영역에서 보면 초대형 우량주가 하루에 35% 이상 폭락하는 때가 간혹 있다. 실례로 보스턴 비어 주가는 1400불에서 1000불로 떨어지자 저점 매수자가 많았다. 사람들은 탄산 알코올 음료가 탄탄한 성장을 기반으로 반등할 줄 알았다. "하나도 안 팔린다." 보도가 나가자 500불로 단숨에 주저앉았다. 이런 경우 주주를 모아 줄소송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줄을 잇는다. 기업은 매출감소를 눈치 챘었지만 주주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데없이 벼락을 맞았다. 블랙스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날아든다.

회색 코뿔소는 아는 사실이지만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하기에 위험은 과소평가 되어 나중 큰 위험에 봉착한다는 뜻이다. 요즘 인플레이, 이자율, 테이퍼링, 공급망 붕괴, 반도체

부족, 원자재 폭등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흘러나온다. 모두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얼마나 위험한지?' 경중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르다. 애플이 광고 추적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광고로 먹고사는 페이스북(메타), 스냅, 핀터레스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은 일찍 나왔다. "설마 그럴 지경까지 갈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심각한 실적보고서를 보고 사태의 비중을 알아차렸지만 주가는 이미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줌, 질로우, 펠로톤, 로쿠 등을 대상으로 미리 나왔다. 이들 혁신기업은 속절없이 추락하였다. 회색 코뿔소라 판단하면 추가매수를 중단하고 보유물량을 축소하며 관망 모드로 대비해야 한다. 회색은 검정과 흰색이 뒤엉킨 알쏭달쏭한 색깔이다.

기술(Technical) 분석을 좋아하는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10개 이상의 보조지표를 걸어놓고 마치 우주선을 탄 채 각종 항법장치의 게이지를 읽으면서 주가를 예상하는 것 같다. 가치(Value) 분석은 EPS, PER, ROE 등 온갖 재무통계를 근거로 오른다, 내린다는 판단한다. 하지만 테크 성장주는 이런 숫자들이 무의미할 때가 많다. 미래가치를 누가 정확히 산정하겠는가? 기술과 가치분석 둘 다 합쳐보아야 30% 미만의 적중률을 보이기에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런데도 주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정밀하게 돌아갈 것이란 환상을 사람들은 품는다. 주가는 70% 불확실의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기대심리, 탐욕, 공포, 착각, 집단 군중심리가 뒤엉켜 다양한 복잡계를 이룬다.

아무리 냉정히 판단하여 주식투자를 해보았자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리는 반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불확실한 위험은 그걸 예측, 관리, 수습하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변동성이 늘 꿈틀거리는 증시에서 인간이 예상한 판단은 자주 어긋난다. 그런 대비와 관리는 하고 있는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블랙스완, 알면서도 들어 받치는 회색 코뿔소, 영문도 모르고 튀어 오르는 쾅거루, 창공을 날다 추락하는 까치, 밑바닥을 기는 지렁이,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 등 온갖 동물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 증시다. 결국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관리하는가? 과거와 달리 투자 방법이 다양해졌다. 주식만 하더라도 일반주식 투자와 달리 소수점 투자, ETF, 펀드, 레버리지 활용 등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한 방법들이 많아졌다. 이런 차이를 이용한 다양한 판(板) 분산투자가 유리해 보인다. 또 약세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기준과 원칙을 준비함도 좋다. 그것이 위험 관리이다. E&C



눈이다

하늘에서 하얀 솜처럼 내린다는 눈이 궁금하였다.

중학교 때 “눈이다.” 아이들 외침에 뛰어나가 보니 칙칙한 하늘에

희끗희끗 싹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제 진눈깨비였는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부산에도 눈이 왔다는 의심스러운 뉴스를 라디오에서 듣고 멀리 동래까지

친구들과 버스 타고 찾아간 것은 20세 때였다. 눈은 높은 나뭇가지에

1~2cm 쌓였다가 반짝이는 햇살 아래 녹아

빛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실제 눈을 본 것은 논산훈련소였다. 연일 폭설이 내렸다. 훈련병 이라고 훈련만 한 게 아니었다. 시멘트 벽돌 모래 나르기, 배추와 무 자르기, 눈 치우기 온갖 사역이 더 많았고 훈련 대부분은 PT 체조로 때웠다. 조교나 훈련병이나 차가운 언 땅에 계속 배를 댈 수도 없는 차가운 날씨였다. 킁킁한 새벽 6시면 “동이 트는 새벽녘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군가가 울려 퍼지고, 아침 식사 후 “오늘 3중대 훈련 제외, 눈 치운다. 실시!” 연병장 주변 도로와 통로의 눈을 치울 때 눈은 무거운 쓰레기나 다름없는 고역이었다.

그러다 전북 완주군 대아리 저수지에 유격훈련 1주일 받으러 간 적 있다. 갈탄과 폐차카 난로를 거처서 처음 보았다. 이걸 다루려면 경험이 필요한데 꺼뜨리는 바람에 밤새 병사들이 동태가 되었다. 알루미늄 수통을 잡으면 손바닥이 짹 짹 달라붙고 머리맡 주전자 물이 얼어붙는 날이었다. 한밤중 막사와 떨어진 변소에 오줌 누러 나갔다가 얼어 죽는지 알았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고산(高山)지대 밤하늘에는 백색 달이 깊은 저수지와 눈으로 가득 덮인 산야를 비추고 모든 게 하얗게 얼어붙어 고요했다. 캄캄한 밤인데도 흰 달이 비치는 부분은 대낮같이 환했다. 그 광경에 산탄총 맞은 들오리 마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달빛 닿는 모든 곳이 눈부신 하얀 눈이었다.

세월이 흘러 미국 가기 전 뭘 보고 와야 할지 촌놈 마음은 소란했다. 가는 날이 장날이면 운에 해당하고 눈이 오면 좀 이상한 날로 바뀐다. 뉴욕, 보스턴, 코네티컷이 위치한 동북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도로는 차가 다니지 못하고 길가에 2~3m 쌓아 올린 눈 둔덕이 양변에 가득했다. 호텔과 레스토랑만 오고 갔고 도시락 라면 먹던 기억이 난다. 본래 이 동네에 눈이 많은지 알지 못하지만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눈발을 뛰어다니며 팝콘을 받아먹어 비만인 것은 알았다. 공항에서 긴급뉴스를 보았다. 우리가 TV에서 예사로 보던 장면이 나왔다. 북한 군인이 광장에서 탱크를 앞세우고 군화와 발을 철사로 꿰어 놓은 인형처럼 착착 행진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 ‘저기는 바로



전쟁 나겠구나’ 그런 불안이 느껴졌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구경 잘했냐는 말에 “눈만 보고 왔다.” 대답하고 입을 닫았다.

아무래도 관념적 눈은 ‘설국’이란 소설에서 형상화된 듯하다. 소설 줄거리와 전개가 미밋하기에 읽는 재미는 딱히 없다. 시처럼 써 내려간 소설, 글로 그린 그림으로 보면 아름답다. 차가운 눈을 배경으로 인간이 가진 사랑, 정은 하얀 입김처럼 텅텅이 사라지고 만다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온기를 희미하게 간직하다 차갑게 식어 버린다. 결국 눈이란 어딘가 따뜻한 곳을 찾을 수 없다면 괴로움을 안겨주는 냉정한 자연이다. 그런데 비, 바람, 폭풍과 달리 눈은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환각적 아름다움을 준다.

눈 뜨자마자 본 게 바다이고 늘 바다를 보며 살았던 사람에게 바다가 무언가 묻는다면 “그냥 바다지.....”라고 대답할 것 같다. 그러나 바다와 접하지 않는 내륙 고장이나 그런 나라 사람들은 바다를 무척 궁금해하고 또 보고 싶어 한다. 바다를 처음 보면 “바다다.” 외치며 깊은 감동을 받는다. 눈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눈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도 그런 것일까.

1992년 유성, 하늘에 구멍 난 듯 하얗게 눈이 내려 버스가 끊겼다. 택시를 불렀지만 가는 곳을 듣고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유성 온천장에서 자고 갈까 한참 망설이다 신탄진 쪽으로 무작정 걸었다. 쌓인 눈이 발목까지 푹푹 파묻혔다. 눈이 다져진 곳에는 뿌드득 소리가 났다. 대략 15Km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탁한 밤하늘에 눈은 차츰 자자 지고 달이 어느새 돌아왔다. 머리와 어깨 위로 눈송이는 시나브로 내리고 있었다. 깊고 그윽하고 어두운 밤하늘이었다. 그때 눈 내리는 밤이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끝없이 눈길을 밟으며 나지막한 소리로 “눈이다.” 외쳤다. **E&C**



불가능을 현실로 히든 피겨스

불과 60년 전인 19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흑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공공장소는 물론 대중교통, 화장실, 식당까지 흑인은 백인과 철저히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시기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소련과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던 시기이기도 하다.

1957년 미국은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시키자 큰 충격을 받고 소련보다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이처럼 걸로는 우주 기술을 연구하는 진보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노골적인 인종 차별이 남아있던 모순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히든 피겨스'에는 당시 백인 엘리트들이 가독했던 NASA의 '머큐리 계획'에 선발되어 근무한 흑인 여성 3명이 등장한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머큐리 계획의 'Hidden Figures'(숨겨진 영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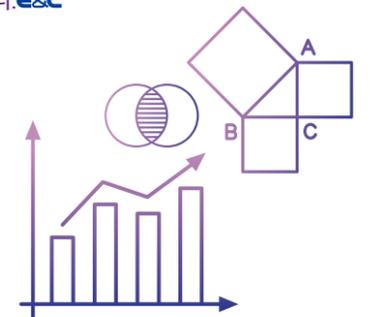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좁은 전산실에서 단순한 계산 검토만을 해야 했던 캐서린. 엔지니어를 꿈꾸지만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에 가로막힌 메리. 사실상 주임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유색인종은 주임이 될 수 없다는 방침 때문에 번번이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도로시. 이 세 주인공의 공통점은 재능이 있지만,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녀들은 넘치는 재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끈기 또한 가지고 있었다. 백인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법적 공방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또 컴퓨터가 인간의 계산능력을 대체할 거라는 점을 예견하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하는 노력으로 마침내 메리는 NASA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 그리고 도로시는 주임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캐서린이 그동안 받았던 차별에 폭발해버리는 장면이다. 캐서린은 NASA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우주 임무 그룹에서 임시직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일하던 동관에서 유색인종 화장실이 있는 서관으로 800m를 달려가야 했다. 단지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서 왕복 1600m를 뛰어 다녀야했다. 이를 알 턱이 없는 상사 해리슨은 필요한 순간마다 그녀가 자리에 없다면, 도대체 무얼 하고 다니는 거냐고

다그친다. 이에 캐서린은 그간의 설움이 터져버리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차별에 대해 토로한다. 그녀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팀원들의 눈길, 유색인종 전용인 낡은 커피포트, 근무하는 동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색인종 화장실... 해리슨이 캐서린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장면으로, 이후에 해리슨은 직접 인종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팻말을 부수고는 이렇게 외친다. "나사에선 모두 같은 색 소변을 본다"

이처럼 '히든 피겨스'를 감상하다 보면 주인공이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영화는 그녀들이 차별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단지 무겁게만 다루지 않는다. 물론 그녀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억울함보다는 유쾌함에, 모욕감보다는 따스함에 빠져들게 된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신나는 노래에 함께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들에게서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는 그녀들이기 때문이다.

'히든 피겨스'를 감상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가 가지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겠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성취되고 그런 기적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존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곤 한다. 세상의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 힘쓴 그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건네준 용기로 세상을 바꿀 또 다른 '히든 피겨스'들이 생겨나면 좋겠다. **ES&C**



주) figue는 여러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영화제목은 '숨겨진 인물'이라는 뜻과 '감춰진 수치'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지만 복잡한 궤도의 '수치'를 성공적으로 찾아냅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한국와인, **뱅꼬레**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도 그 맛과 품질을 인정했던 세계적인 와인이 있었다. 동양맥주(OB, 현 롯데주류BG)에서 1977년 05월에 출시한 독일 모젤와인 타입의 맑고 향기가 은은한 Medium Sweet Wine 마주앙(Majuang)이었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농장에서 제조되었던 마주앙은 1974년 해태주조에서 최초로 출시한 노블와인에 이은 우리나라 의 두번째 와인이다. 여기서 생산한 레드와 화이트 2종의 와인 중 마주앙 스페셜 화이트는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 천주교 미사주로 봉헌되기도 했다.



2017년도에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경북 영천 금호읍의 한국와인 뱅꼬레 (Vincoree, Vin은 프랑스어로 와인, Coree는 한국을 의미)는 제법 규모가 있는 화포를 처음 만든 고려 말 최무선 과학관 바로 옆에 있다. 뱅꼬레 하형태 대표(68세)는 경북대 농화학과 졸업 후 마주앙을 만든 두산주류에서 82년부터 99년까지 근무하였고 2006년 한국와인을 창업했다. 포도 집산지 영동과 비슷하게 영천도 와이너리 육성 사업을 펼쳐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와이너리 중에서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곳이 하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와인 뱅꼬레다. 하대표는 30년간 국내외 와인을 연구하고, 와이너리들에게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예전 마주앙 농장 인근의 영천시 고경면 5,000평 농장에서 카베르네 쇼비뇽, 샤르도네, 메를로, 리슬링 등 15가지 양조용 포도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농장에는 예전의 마주앙 농장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 한국와인 뱅꼬레는 영천에서 나는 여러 품종의 포도와 과일을 이용하여 뱅꼬레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아이스 와인, 스타베리 오디 와인, 감와인 등 다양한 와인을 만들고 있다. 주재배 품종은 흔히 머루포도라고 불리는 영천의 대표 품종 엠비에이(MBA : Muscat Bailey A)이다. 대표주는 뱅꼬레 화이트(포도와인, 11%, 샤르도네, 케르너, 세미옹)과 뱅꼬레 로제(포도와인, 11.5%)이다. 스타베리 오디(오디와인, 12%)도 많이 찾는다.

뱅꼬레 화이트와인은 은은한 금빛이 도는 색감으로 신선하고 부드러운 아카시아 계열의 꽃 향기가 난다. 입안에 적당히 머무는 산미가 싱그럽고 뱅꼬레 로제는 사과 자두 복숭아향이 어울어진 분위기의 미디엄 바디와인이다. 스타베리 오디는 뽕나무 열매 오디로 빛은 정통 발효와인으로 루비색을 띄며 복합적인 아로마향과 농익은 발효향을 느낄 수 있다. 보통 국산와인의 당도보다는 낮고 드라이한 맛을 보여 준다. 체험장에서 시음을 해 보니 당도나 드라이한 맛에서 유럽산 와인보다 캘리포니아산 와인이나 칠레산 와인에 가깝다. 뱅꼬레에서 생산하는 와인들은 탁도나 산도를 잘 조절하고 있었다. 유럽 와인에 치즈가 어울린다면 뱅꼬레 와인에는 한식이 어울리는 맛이다. 하실장은 김밥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자평이다.

체험장 앞 뒤로는 보기 어려운 구지뽕을 비롯한 뽕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와인 만들기, 와인 시음, 코르크 열쇠고리 만들기 등이 있다(예약 필수). 인근에 최무선 과학관, 사일온천, 오감공예 체험장 등이 있다. 체험장에는 하대표의 딸인 하세비 실장이 상주한다. www.vincoree.com

찾아가는 길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창산길 100-44, 054-333-3010, www.vincoree.com 최무선 과학관 주차장을 함께 쓰고 있어서 편리하다.



Editor's Letter

매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발간하는 새해 첫 호는 많은 고민이 녹아들기 마련이다. 한 해동안 사보의 전체적 흐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어떤 칼럼을 채울지 하나하나 고민하며, 칼럼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선정한다. 회사와 직원들의 소식을 전하며 각자에게는 도움과 도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번 호 역시 새로운 시작이고 변화를 준비하며 직원들의 새 다짐과 새 각오에 대해 들어보았다. 개인의 인생 목표와 행복이 무엇인지 사보를 읽는 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부는 특히 이번호에 실린 퇴직한 선배님의 코이카 연수기를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취업제한이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닌 눈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실천으로 보여준 э세이가 직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이 되길 바란다.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즉 현실에게 쫓기는 삶이 아닌 그 너머의 삶, 그 너머의 한국전력기술을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원고모집

- 2022년 새해! With코로나로 새해에 세운 계획과 소망 등을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원고료 또는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여행이나 맛집, 반려동물, 취미 등과 같은 직원 여러분의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실 분을 모십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 ▶ 분 야 :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는 에세이
 - ▶ 원고 분량 : A4, 2면
- '둘도 없는 내 친구'로 평생 정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절친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과 친구 1명이 함께 2인으로 산책, 식사하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대담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 분 야 : 기획코너
 - ▶ 원고분량 : A4, 2면
 - ▶ 원고료(7만원) 제공, 신청하시고 계획 제출 후, 기타 지원 방안 협의

독자의견 및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원고는 2월 5일까지 sky03tree@kepco-enc.com으로 보내주세요. 원고나 독자의견을 보내주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보내주셔야 상품 전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백정현 (원자력기술실 과장)
- 박두수 (인사노무처 대리)
- 신영미 (기계배관기술실 과장)
- 윤동규 (글로벌마케팅실 차장)
- 이의석 (기계설계그룹 과장)

◆ 한기인의 메아리 : 커피쿠폰 1만원

- 이원희 (원전 O&M사업그룹 부장)
- 윤용준 (원자력사업처 차장)
- 최창섭 (기술전략실 사원)
- 이상현 (경영혁신실 사원)
- 정문경 (전기계측기술실 대리)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김은미 (사외독자)
- 박영순 (사외독자)
- 전호재 (사외독자)
- 김동석 (사외독자)
- 배명순 (사외독자)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던 중, 김천의 맛과 멋을 소개한 '맛집탐방'과 '김천 나들이' 코너를 읽고 김천으로 떠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착한 가격에,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외관만큼 고유하고 깊은 맛을 자아내는 김천 서민 식당들과 김천의 명산 '고성산' 그리고 김천시립도서관 등을 두루 찾아 보겠습니다. (김은미 사외독자)



• 여수여행기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코로나이후 처음으로 여행을 간 곳인데 소개되어 반가웠습니다. 오동도의 동백꽃이 만개할 때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동백 군락지로서 오동도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더군요. 국립공원으로서 잘 가꾸어져 있고, 어른아이 할 것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기사 덕분에 여행을 새롭게 한 번 더 다녀온 것 같아요. 허영만 화백 고향이라는 것도 알게되었네요. (박영순 사외독자)

• 많은 이야기가 훌륭했지만 그중 여행가자! 여수 여행기편을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대로 여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꼭 가보고 싶은 여수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수하면 오동도, 동백꽃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이 많은줄 미처 몰랐습니다. 돌산공원, 지산공원,만성리 해수욕장 등등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지금당장 여수로 달려가고 싶네요. 조만간 올해가 가기전에 꼭 한번 가족들과 함께 밤바다가 아름다운 여수를 찾아서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렵니다. 다음호는 벌써 내년이 뵈겠네요.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전호재 사외독자)



• '클라우드 컴퓨팅, 구름 속을 날다' 기사를 읽고 MS·구글·IBM과 같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에서 왜 앞 다투어 클라우드 산업에 합류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통신의 결합'으로 요약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클라우드 컴퓨팅이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함과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눈부신 발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적 패러다임과 기술의 대변혁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시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로 국가 정보통신기술(CT)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김동석 사외독자)

• 눈을 품은 백록담 사진과 함께 한 포토 에세이 덕에 오랜만에 시 한편 즐겁게 감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옛 기억들도 되살릴 수 있었고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쓸쓸함을 느껴지는 초겨울 따스함의 창을 담은 표지와 한국전력기술의 내일을 위한 생각!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잘 어우러진 11,12월호 였던 것 같습니다. (배명순 사외독자)